

Vol.17

2019·07+08

저작권보호전문지

A large, light blue, stylized letter 'Q' is the central graphic element. It is filled with a vibrant tropical beach scene. The top part of the 'Q' shows a clear blue sky with several seagulls in flight. The middle part shows a bright blue ocean with white waves crashing onto a sandy beach. The bottom part of the 'Q' shows a close-up of a vintage camera, a yellow plumeria flower, and several green leaves. To the left of the 'Q', there are two tall palm trees and a large orange starfish on the beach. The entire scene is set against a light blue background.

CLEAN

청정한 저작권 생태계를 위한 ©스토리

쫄인 포커스

대 중국 저작권분쟁 역사 새로 쓰는
'미르의 전설2'

스페셜 테마

A패권 경쟁 시대,
AI 지식재산권 분쟁의 전망과 우리의 전략

저작권 시야 넓히기

SW 저작권
창작가치 보호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

트렌드 리더

저작권 강의 속으로 빠져~봅시다~
개그맨 안상태

CONTENTS

〈C STORY〉는 격월로(홀수 달)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4

깊게 보는 저작권 보호

- 04** **줌 인 포커스**
대 중국 저작권분쟁 역사 새로 쓰는 '미르의 전설2'
- 08** **스페셜 테마**
AI패권 경쟁 시대, AI 지식재산권 분쟁의 전망과 우리의 전략
- 12** **C STORY가 만난 사람**
디지털 범죄를 대비한 디지털 셜록들의 진검 승부
제6회 디지털 범인을 찾아라 경진대회 수상자 박인철, 진승택
- 16** **글로벌 인사이트**
 - ① 캐나다 산업, 과학 및 기술 상임위원회
비사법적 콘텐츠 차단 조치 유보
 - ② 스페인 사법부의 THE PIRATE BAY 사이트의 차단명령
 - ③ 유튜브, 만화 저작권 침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다
 - ④ 핀란드의 시장조사 전문 업체,
불법 복제 관련 연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다

32

새롭게 보는 저작권 보호

- 32** **트렌드 리더**
저작권 강의 속으로 빠져~봅시다~
개그맨 안상태
- 36** **저작권과 역사**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의 발자취와 전망
- 40** **저작권 시야 넓히기**
SW 저작권
창작가치 보호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



통권 17호 발행일 2019년 7월 발행인 윤태용 편집인 강대오 발행처 한국저작권
보호원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1602) 서울산업진흥원
4, 9, 10층 기획·제작 침해예방팀(편집실) 편집·디자인 방형식디자인(02-2082-
6388) 등록번호 마포 마-00057 TEL 1588-0190 FAX 02-3153-2709
구독신청 및 문의 보호기반국 침해예방팀 이대홍 주임 02-3153-2406
cstory@kcpa.or.kr

44

가까이 보는 저작권 보호

- 44** **생생 저작권 보호 현장**
 - ① 2019 정품이 흐르는 교실
 - ② 제6회 디지털 범인을 찾아라 경진대회 시상식
 - ③ 제31회 저작권 열린포럼
 - ④ 2019 저작권 보호 리포터즈 발대식 및 워크숍
- 56** **보호원 돋보기**
 - ① 미래 산업의 원동력 소프트웨어 교육
 - ② 저작권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2019 제2차 저작권OK 온라인 신규 지정업체 소개
- 64** **이야기로 보는 시정권고 사례**
동호회 회원들만 이용하는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에 웹툰을 올리는 경우
- 66** **친절한 바로C**
저작권 침해 여부 확인 및 불법복제물 신고 방법
- 70** **NEWS**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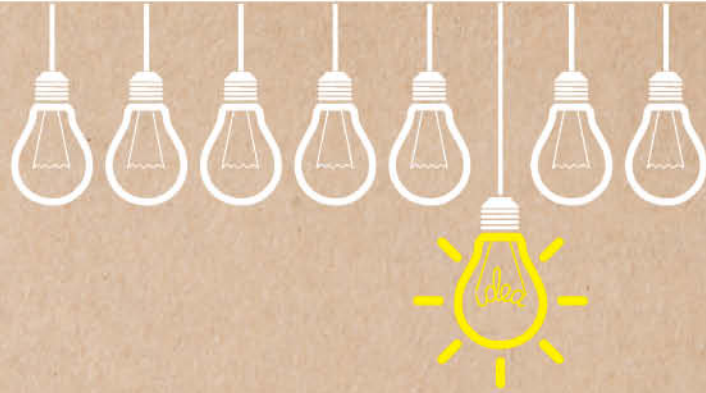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저작권 보호

- 72** **2019 상반기 저작권 보호 통계**
한눈에 보는 통계 인포그래픽
불법복제물 단속·시정권고 통계 및 침해예방 활동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22조의 2에 의거하여 국내외 저작권 보호기반 조성 및 저작권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체계적,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 구축과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 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 된 글과 사진을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 C STORY는 저작권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cpa.or.kr)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행한 <C STORY>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대 중국 저작권분쟁 역사 새로 쓰는 ‘미르의 전설2’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올해 5월 중국회사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약 800억 원 규모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메이드가 한국의 국제 저작권 분쟁사 한 쪽에 남을 만한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위메이드와 중국 게임사 간 소송전을 통해 중국의 변화한 저작권 인식을 살펴보고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다.

글. 김시소 | 전자신문 기자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공동으로 게임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를 가진 한국 게임회사다. 액토즈소프트 모회사는 중국 산다게임즈(현 성취게임즈)다. 중국 게임사 킹벳 계열사인 절강환유는 2016년 10월 위메이드와 미니멈개런티(MG) 500억 원 규모 '미르의 전설2' '미르의 전설3' 모바일·웹게임 개발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IP 기반 웹게임 '남월전기'로열티를 미지급했다.

위메이드는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모바일 게임과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MG와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위메이드 중재 신청에 대한 국제기구의 결론이다.

국제상공회의소가 내린 이번 판결은 한국기업의 국제분쟁 승소란 사실 외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과정이 없다. 중재 판정은 중국 법원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법원이 강제 집행 할 수 있는 것이다. 위메이드는 “중



국내 IP 침해 소송에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이 이전에도 한국과 중국에서 60건이 넘는 IP 침해 소송을 진행해왔다. 대부분 중국 회사가 상대다. 이중 일부는 결과가 나왔고 일부는 진행 중이다. 위메이드는 왜 중국 게임사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을까?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소 복잡한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다윗' 위메이드, '골리앗' 중국 IP 전쟁 시작하다

위메이드는 최근 4년간 중국 내 지식재산권(IP) 사수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자사가 공동 보유한 '미르의 전설2' IP 로열티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이다. 위메이드와 중국 간 분쟁은 2014년을 전후해 산다게임즈 측이 '미르의 전설2' 관련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중국의 대표 게임사 중 하나인 산다게임즈는 2015년 매각과 인수를 거쳐 주인이 바뀌었다. 새로운 산다게임즈 경영진들은 미르의 전설 로열티 지급이 전(前) 경영진이 맺은 계약이라는 점을 내세워, 로열티 지급을 미뤘다. 배분률 등이 쟁점이었다. 여기에 산다게임즈가 위메이드와 논의 없이 중국 내 게임사들에게 '미르의 전설2' IP를 팔아온 것도 문제가 됐다.

위메이드와 산다게임즈가 분쟁하는 사이 산다게임즈를 통해 '미르의 전설2' IP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이 중국에서 연이어 출시됐다. 중국 내 다수 중소 게임사들이 산다게임즈와 계약을 맺고 개발에 뛰어들었다.

